

시론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윤석열이 체포 구속됐다. 아직 혼란이 있지만 불안이 해소되어 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법치주의가 한국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불안 요인이었다. 하루빨리 탄핵이 이뤄지고 내란이 단죄되어 나라가 정상화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비례한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역대정권 1인당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김영삼(9.9%) 김대중(4.7%) 노무현(10.2%) 이명박(1.6%) 박근혜(2.8%) 문재인(5.2%)로 소위 민주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2년간 20.2% 달러가 증가했고, 보수정부인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4년간에는 4.519달러 증가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오히려 하락하기까지 했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로 해마다 13조씩 세수가 줄고 R&D 축소 등 중소기업과 과학기

올해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다

술예산이 거의 30% 이상씩 줄어 나갔다.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광주테크노파크도 연 2년째 30% 이상의 재정감축 속에서 기업지원 축소와 경영압박을 받는 실정이다.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에서 많은 과학기술 인력이 일자리를 잃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 결국 윤석열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더니 모든 것을 야당과 국민들에게 덮어씌우고 위험 위법적인 계엄으로 최악의 경제 사태까지 초래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여당과 보수 언론이 마치 야당이 국가 경제에 혼란과 위기를 만드는 양 국민을 오도한다. 사실 오늘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있다.

그런데도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의 논리에 속는 국민들이 많다. 그들은 히틀러처럼 사회적 약자인 실업 노동자들, 희망을 잃은 청년들, 불안정한 노인층에 경제 악화 야당 책임론을 교묘하게 선동하여 극우화시키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 이대로는 독재와 경제 파탄이 동시에 심화할 것이 뻔하다.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볼 때 후회할 뎀 이미 늦어 추락하는 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조기 추경예산 편

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다. 6대 시중 은행장을 만나 상생 금융을 확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일도 설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년 시정 구호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내걸었는데 적절한 방향 제시다.

올해는 두 가지를 다 찾아야 할 대전환의 시기다. 광주시와 경제단체 공공기관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살리기 결의대회'를 연다. 경제가 결의대회 한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경제주체들이 모여 서로 협동하고 경제 활력을 촉진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탄핵과 제주항공사가 불러온 소비위축과 지역 경제체제는 심리적 요인도 크다.

시민 스스로부터 지역을 살리자, 우리 지역 상품을 쓰자, 우리 동네 가게에서 구매하자고 나서고 정부 기관·지사·공공기관·금융기관·경제단체·학교·언론·노조 등이 모두 캠페인을 한다면 결코 적은 힘이 아니다.

거기다 지역 제품 구매 쇼핑물 같은 플랫폼, 상품 카드나 지역화폐, 지역 배달 플랫폼 지원 같은 수단이 동원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가 활발해진다.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다!

社說

시간이 멈춰버린 제주항공 참사...수습은 아직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0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합동 추모식은 진도 잇닿아 숙연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첫 순서로 단상에 선 박찬진 대표는 "지금도 집에 가면 환한 모습으로 마중 나올 것 같고, 아직도 채취가 아른거린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유족들은 전하지 못한 말을 담은 편지를 읽으며 하늘에 닿기를 바랐다. 친구이자 멘토였던 아빠를 떠나보낸 딸은 함께한 순간들을 간직하겠다고 울먹거렸다. 모든 것이었던 딸과 아내를 한 날한시에 잃은 남편은 언젠가는 사진마다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보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은 안전 사회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였다.

정부는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지원단을 정식 발족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

동으로 구성됐으며,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한다. 국회는 유족의 경제·심리적 지원과 추모 공간 마련, 지역경제 회복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다시는 참담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공항 활주로 상 기계 장애 등은 수거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출몰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원인일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컬라이저)은 홍보물 아직 자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가 끝내는 오열하고 주저앉았다. 이들은 다음달 49재를 지내고 현장을 다시 방문한다.

179명의 희생자는 소중한 부모였고 사이좋은 형제, 귀중한 아들딸, 항상 마주했던 동료이자 이웃·선배였다. 유족은 그날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 마음을 예는 그리움으로 통곡하고 있다. 수습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날날이 밝혀야 할 것이다.

블라드 사고 관련 광주 서구청의 황당한 업무 논총

광주 서구의 무책임한 행정이 애꿎은 사람을 나락으로 몰았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구청의 안일함으로 인해 뜻밖의 송사에 휘말린 상황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2023년 12월 풍암동 황새봉 등산로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해 서구는 블라드 설치지에 대한 인적 사항을 요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에 자료를 회신했다. 당시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블라드에 부딪쳐 골절상을 입었다는 피해자는 3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고, 이에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블라드 설치자로 특정된 인물은 낙상 사고로 다쳐다니는 시점보다 이전에 시설을 제거했다며 기관이 현장 조사는 물론 자신에게 묻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과거 사고 지점에 블라드를 불법 설치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해 고발당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비취 지대직장으로 확정해버렸다는 주장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뒷집

만 진 듯한 서구의 태도다. 실제로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건보에서 들었다면 자료 제공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했을 것이라고 해괴한 해명을 했다. 또 요청이 접수된 때도 사고 뒤 3개월여가 지난 시점으로 당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블라드 소송 중이어서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서구 행정이 이토록 허술했다. 사후 대응도 나 몰라라 식이다.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난데없이 소장 받은 당사자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구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건보 측에 소명하고 취해를 요구해야 한다. 신뢰의 문제다. 잘못됐다면 책임지고 수습하는 게 옳다. 행정은 군림하는 게 아니다. 주민 삶의 질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 불미스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당한 업무 처리를 당부하는 바다.

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학은 우리 삶을 기록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힘이다. 시대를 반영하며 때로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개인의 고유한 목소리가 사회의 보편성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는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탐구했다. 한국 문학도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한국 문학은 고대 신화와 서사시에서 시작된다. 삼국 시대의 서정시와 고려 시대의 향가, 그리고 한문학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과 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다. 고려 가요는 서민의 감정을 표현하며 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조선 시대에는 문학이 윤리적 가르침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훈민정음으로 한글 문학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접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문학의 대중화를 이뤘다. 정철의 '사미인곡'은 사랑과 자연을 결합하며 정치적 상황을 서정적으로 상징화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저항 문학이 민족적 자각과 독립의 열망을 불러일으켰으며, 현대에는 전쟁의 상처와 고통이 문학 속에 담겨 있었다. 이청준, 황석영, 박완서와 같은 작가들은

내 글이 빛나는 시간 '글빛마루'

사회와 개인의 갈등을 작품 속에 섬세하게 그려냈다. 이들의 작품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기록이자 사회적 성찰의 증빙이다.

작가 한강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인간 내면의 섬세한 탐구와 자연과 인간, 억압과 자유 사이의 갈등을 독특하게 그려내며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학은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뉘며, 각 분야의 걸작들은 인류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문학 작품은 종종 영화,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로 변형되며, 사회적 이슈나 역사적 사건을 다루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힘을 지닌다.

문학은 우리 삶의 작은 경험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여 다른 이들과 교감하는 과정이 바로 문학이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이야기를 사회와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2025년에 '글빛 마루'라는 문학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을 글로 남기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경험, 감정, 사상, 관념을 표현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문학의 본질이다. 어떤 작품은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작품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독자에게 낯설음을 느끼게 한다. 작가의 표현 방식에 따

라 독자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글쓰기는 소박하게 시작했다.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방학이 끝날 무렵 친구들과 모여서 일기를 베껴 써주었다. 낱씨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단 몇 글자라도 써 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여름 대청에 얹드려, 겨울 아랫목에 둘러앉아 일기를 쓰던 그 시간이 글쓰기의 기쁨과 어려움을 일깨워준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렇듯 글쓰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10년 전 노인대학에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학생들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감히 글을 쓰나" 하고 주저했다. 그러나 과정을 마치며 팔십 평생의 기억을 글로 간추리고 책으로 만들어낸 학생들은 큰 만족감을 느꼈다. 출판기념회는 온 가족의 축제가 됐다.

광주문화재단이 마련한 인프라 '글빛 마루'는 시민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시민 문학인들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 잘 쓰지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써 내려가며, 이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문학적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문학은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 이러한 문학의 힘을 통해 광주가 문화적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해가기를 바란다. 한강의 기적이 광주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독자투고



2025년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온다. 긴 명절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차량 운행 시 주의할 점이다. 명절 때면 부주의나 과속, 음주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명절 교통사고는 대부분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와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음주 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음식과 술에 대한 당부다. 한끼만에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 배탈이 나는 경우가

설 명절 연휴, 안전을 생각하고 실천하자

종종 있다. 무절제한 음주로 싸움이 일어나 즐거운 명절을 망치기도 한다. 따라서 과식과 과음을 지양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재 예방이다. 평소 화재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명절 화재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물·음식을 올려놓고 성묘를 가거나 다른 일로 외출해 집 안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튀김 등 음식 조리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기

름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배뱃·프라이팬의 뚜껑 또는 상추나 배추, 양배추 등 잎이 넓은 채소로 덮어 산소를 차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소중한 이들에게 주택 화재 발생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선물하는 것을 권해본다.

'2025년 설 명절 연휴'에는 제일 먼저 안전을 생각하고 실천해 사고 없이 가족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기를 바란다.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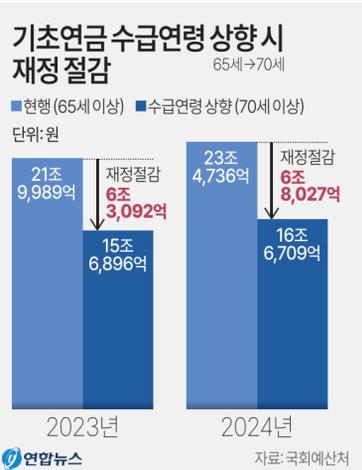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기초연금 수급 연령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 6.8조 재정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예정처의 '노인연령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 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9억원, 2024년 6조8천27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06억원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9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